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6년도 표어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설날 예배

###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 묵도 ······ 다함께
- 성시 ······ 시편1편 1~6절 ······ 인도자
- 찬송 ······ 460장 ······ 다함께
- 기도(또는 사도신경) ······ 가족중(또는 다함께)
- 성경봉독 ······ 시편 23편 1 - 6절 ······ 인도자
- 말씀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인도자
- 찬송 ······ 40장 ······ 다함께
- 주기도 ······ 다함께

### 본문 말씀

(개역개정판 시편 23편 1 - 6절)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풀 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성도에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 1. 신앙생활의 가장 고상한 표준

바벨탑은 수많은 인적, 물질적 자원이 투입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그 위대함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그네에게 대접한 냉수 한 그릇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집니다.

성도에게는 '주의 이름' 만이 신앙의 가장 고상한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바랐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신앙생활의 가장 안전한 기준

'뿔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지만 두들겨 보고 건너 다리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 안전합니다.

성도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가장 안전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이름의 영광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건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에 덕을 세울 것입니다.

### 3. 힘있는 기도의 근거

자신의 부족과 무능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채우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만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기도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찾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죄사함을 간구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개인과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의 영광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동기가 되고 목표가 되고 방법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북한 주민과 탈북자를 위한 KCC 서울 통곡기도대회

## 2월28일(화)-3월1일(수) 영락교회에서

신앙과 인권의 사각지대 북한의 주민과 탈북난민을 위한 KCC(북한 자유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 서울 통곡기도대회가 열린다.

이번 통곡기도대회는 북한의 주민과 탈북자들의 비참하고 절박한 인권상황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한국민족과 한국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는 운동이다. 또한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갇힌 자들의 해방과 탈북자들의 강제복송 중단,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 등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북한 땅과 그 주민이 마침내 복음으로 자유를 얻으며 한민족이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되도록 기도하는 민족 통일과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운동이다.

이번 대회는 2월 28일(화)부터 3월1일(수)까지 양일간 영락교회에서 열리며 2월28일은 목회자, 3월1일은 목회자와 성도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우리의 죄와 무관심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휴전선이 북음으로 무너져 북한 땅에도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한다.

이 일을 위해 전화봉사할 자원봉사자 300명을 우리교회가 지원케 된다. 서울 통곡 기도대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 <서울통곡기도대회 기도제목>

1.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2. 중국정부가 더 이상 탈북자들을 복송하지 못하게 하소서.
3.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게 하소서.
4. 분단 60년이 지나기 전에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게 하소서.
5.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되게 하소서.

# 제29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일정 확정

## · 3월6일(월)-5월8일(월) 10주간 · 주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생명사상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 우리교회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장 이종윤 목사이) 15년째 연 2회 각 10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 있는 목회자 신학세미나 제29학기 일정 및 주제, 강사진이 확정되었다.

금번 29학기 세미나의 주제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생명사상'으로 최근 들어 전 세계에게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체세포 복제와 이에 따른 제반 문

제 그리고 사형 제도를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고 올바른 생명윤리를 제시하게 된다. 또한 1교시는 지난 학기에 시편강해를 모두 마치고 '마태복음' 강해를 이번 학기부터 새로 시작한다.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체세포 복제와 사형제도 등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적 생명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29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주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생명사상

· 기간: 3월 6일(월) - 5월 8일(월) 10주간

일자	제1교시	제2교시 강의제목	강사	비고
3월6일		구약에 나타난 생명윤리	유윤중	평택대
3월13일		신약에 나타난 생명윤리	김희성	서울신대
3월20일		기독교 윤리 측면에서 본 생명	임성빈	장신대
3월27일	(오후 2:00-3:30)	타종교(유, 불, 선 등)에서 보는 생명사상	방연상	연세대
4월3일	마태복음 연구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본 생명윤리	박계현	경희대 내과의
4월10일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체세포 복제에 나타난 생명경시	이승구	국제신대
4월17일		종말과 생명	김재진	연세대
4월24일		생명과과학과 생명윤리	신동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월1일		사형제도와 생명	정일웅	총신대
5월8일		생태신학과 생명	김영한	송실대

# 2006년 설연휴를 위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다음주일은 설날연휴로 많은 성도들이 흠여졌던 가족들과 만나게 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명절이면 조상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상을 차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때를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때문에 우리교회는 항상 설날과 추석을 맞아 가족이 둘러앉아 명절날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늘 순례자도 1면에 설날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전도의 시간이 되도록 설날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심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 짓는 설날을 우리 성도들은 감사와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 비전2020운동 후원자 명단

강미영 강수남 강윤숙 김수영 김경옥 김경희 김광신 김명숙 김명옥 김병용 김세재 김순복 김영례 김영우 김영정 김영주 김재근 김정숙 김혜영 노종환(이민회) 민순구 박두호 박민석 박정섭 박찬성 박태성(김수정) 방계운 방효철 배정자 백동식(이순배) 서영세 소선자 손재결 송경옥 신삼철 신용식 신형범 안성현(유숙인) 안창휘 양춘경(이인숙) 엄금순 오영자 오유식 오창근 오천수(서정현) 왕경래 위성남 유관모 유근중 유을상 윤용근(박남진) 윤운식 윤천오 이 갑 이갑연 이경희 이관규 이광열 이근희(정복순) 이덕빈 이동만 이부자 이영기 이영자 이영희 이운영 이준수 임상현 임충식(신선주) 임훈규 장 덕 장두현 장인원 전기섭(원영애) 전용순 전원순 전화진 정명순 정병무 정찬주 정희순 조봉환 조정옥 진 돈 차도훈(남태영) 채덕희 최금자 최난수 최영자 최임수 하영수 하정자 한 수(김미숙) 한종우(황노전) 함은희 홍순복 한나여전도회  
다우주 계속

# 중등부 임원 선출

우리교회 중등부(부장 이태원 집사)는 2006년 중등부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다.

- 회장: 이기쁨
- 부회장: 이성화 · 부회장 :이소연

# 사랑부 차량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린다

1종 보통 면허증을 가진 성도로서 차량부에서 아래시간에 봉고차량을 운전해주실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린다.

1회차: 07:20 - 09:00 2회차: 09:00 - 10:00  
3회차: 13:00 - 14:30

# 금주의 성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1서 5:3-4)

This is love for God: to obey his commands. And his commands are not burdensome, for everyone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even our faith. (1John 5:3-4 [NIV])

만민에게 전도

# 세계를 가슴에 품고



‘증보기도의 끈을 놓치면 선교사는 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는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의 비전을 받고 2005년 1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를 후방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는 증보기도팀이 조직되어 가동되고 있다.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순례자는 2006년 각 선교사의 기도제목과 선교지 소식을 싣고자 한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편집부 주)

선교사	팀장	기도후원자
홍의만 윤혜경	남태순권사	김광신 홍승자 권은주 김규순 김수련 김주현 최소희 최진경 하인선
신종명	박현영집사	이복규 한명순 박찬주 노창훈 박우욱 이성애 신혜영 신혜진
문형숙	문형순집사	하영수 이영자 서경애 신은미 안정숙 양호경 최길욱 최낙준 한선현 강승음 박길수
스브로토바로이	이현주집사	전기섭 오길탁 우지원 오유식 왕경래 오승민 유한영 최규초 문옥일 박진희 원정연
조남혜	양정실집사	박두호 정미연 전용순 황선희 김영옥 이자혁 오정수 이영희(오) 주미영주화인
이재율 박병진	김신영집사	신용식 김영주 안미경 정동학 이갑진 한길동 정창빈 정희정 이상은 김원웅
이은준 강혜정	이영숙권사	최광성 이영기 김태기 정동호 배준길 장인원 유승순 소선자 유을상
강아급 주한나	이난화집사	윤찬오 오형철 신동기 장양일 신정순 황재연 김경옥 김연화 김수정
조범연 김희정	이인숙권사	정병무 이은희 곽 숙 노문환 최형열 이찬호 김찬진 은기장 장정화
이경현	전하미집사	조정식 김영식 김은태 김민희 박길희 진 돈 송혜숙 이승준 원용범 이양철
Mang / Tuang / Nawn / Cung / Kya	전행자권사	박두영 김인수 유기찬 유관모 윤용미 이광열 이용필 이화용 전광환 조성환

## <기도제목>

### 1. 카자흐스탄 /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

- 1500만 카자흐 백성 구원. 교회가 지속적으로 세워지도록
- 기도 동역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 2. 동아시아 / 강아급 주한나 선교사

- 두 자녀의 건강과 안전
- 선교와 현지사업의 동역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 그동안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현지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 3. 인도 / 조범연 김희정 선교사

- 인도위해 헌신할 주의 종들을 많이 양육할 수 있도록
- 양육된 제자들과 함께 인도 전역에서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 4. 캄보디아 / 이재율 선교사

- 첫 사역인 캄보디아 국방부내 한글 영어교육, 1

여단 기갑사령부내 사역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 수도 프놈펜에 있는 마하나임 선교센터가 지금은 캄보디아의 베이스 캠프지만 장차 동남아 군 선교의 중심이 되어 동남아 각 나라의 기독교 인들과 연합해 복음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천국시민양성 - 중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 나를 부르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 이지은(2학년)

하나님! 이제 더욱 주님께 솔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다가갈수록 도와 주세요 저도 몰랐던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이번 수련회가 더욱 좋았습니다.

### 이기쁨(3학년)

나약한 제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는 저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느낌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 서윤영(3학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섬기고 싶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 지금 이 마음 잊지 않게 해주세요.

### 이루리(1학년)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신앙심과 공동체 의식, 적극성 등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님만을 위해 사는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으로 주님만을 위해 사는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 박지원(1학년)

조별 장기자랑 시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의 끼와 성경 내용이 합쳐진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 주은교(1학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배우고

싶었는데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필요로 인해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항상 순종하고, 충성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 최정호(2학년)

이번 수련회에 저는 기도제목도 정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조금씩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전수진(2학년)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경책을 많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가영(3학년)

하나님 언제나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제 사명을 다하고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 정승원(3학년)

약해진 저의 믿음이 다시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 항상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 어성혁(3학년)

무거운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 잊지 말아주세요.

천국시민양성

##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 한정연 (청년부)

올해 새로이 순례자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봉사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생깁니다. 사실 처음에 순례자에서 봉사에 보지 않겠냐고 제의를 받았을 때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유년부 교사와 필그림 중창단으로 봉사하고 있는 중인데다 이제 막 청년부 임원의 임기가 끝나서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던 중이었기 때 문입니다.



또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특성상 주중에는 야근이 잦았기 때문에 마음을 주중에 해야 하는 순례자일이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선 지금 내가 처해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최선의 자리로 모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루에 반드시 완수해야 할 일을 백 가지나 맡았더라도, 이를 하나님을 충성스레 섬기는 일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순례자라면 하나님께서 나

에게 주신 디자인 이라는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곳이란 생각을 주셨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서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청년의 때지만 나의 열정을 주의 나라와 주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많은 것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촛불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빛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촛불이 되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므로 우리에게 단 하나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나누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순례자를 통해 주님의 빛이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비추어 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께 올 2006년 한해를 맡깁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3일(월)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석한다.
- 이사: 6교구 김원웅 집사 김규희 집사 목동 성원초원아파트로  
8교구 홍성주 장로 여현진 권사 상계동 대동아파트 102동 1703호로
- 주간식당봉사: 안인선 강해진 성도 (자녀 첫돌 감사하며) 교회제공
- 주간식당봉사: 빌립선교회(1월22일) 안드레선교회(1월29일)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거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 중 진행되도록
2. 임명받은 일꾼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3. 옛 풍습에 끌려가지 말고 새사람으로 승리케 하소서
4.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 교회오시는 길

